

장성호·홍세완·서튼 KIA '공격야구' 핵심

프로야구 8개 구단 전력 평가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17일부터 시작돼 본격적인 야구 시즌 개막을 알린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명승부를 펼쳤던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는 17~18일 오후 2시 제주도 오라구장에서 2007년 첫 맞대결을 펼친다.

광주(KIA-SK), 수원(현대-두산), 마산(롯데-LG)에서도 오후 1시부터 열전에 돌입한다.

각 팀은 4월1일까지 16일간 14경기씩을 치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전력을 점검한 뒤 정규 시즌을 맞을 예정이다.

두산과 LG는 홈인 잠실구장이 보수 공사 중이어서 마산에서 각각 4번씩 홈경기를 갖는다.

저마다 한국시리즈 우승을 노리며 40여 일 이상 해외에서 구슬땀을 흘린 KIA 등 8개 구단은 6개월 대장정의 출발점인 시범경기에서부터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공격 야구' 부활을 내세운 KIA의 출사표가 가장 눈에 띈다.

KIA는 주장 이종범을 중심으로 장성호-홍세완-래리 서튼으로 구성된 '삼각편대'의 힘으로 화려한 야구를 펼쳐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시즌 KIA와 막판까지 포스트 시즌 티켓 경쟁전을 벌였던 두산도 김동주-홍성흔-안경현-유재웅 등 거포들을 내세워 '팀 홈런 100개 이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3년 연속 한국 챔피언에 도전하는 삼성은 주포 심정수의 부활로 공격력에 숨통이 트였다.

전력 보강은 없었으나 30대 중반 베테랑 타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유일하게 하와이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른 한화는 시범경기에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

두산-팀 홈런 100개 쏘겠다

삼성-3년 연속 챔피언 도전

한화-류현진 등 선발 든든

SK-최정·정상호 타력 가세

LG-투수 선발진 대폭 수술

롯데-최향남 합류, 4강 기대

현대-팀활력 되찾기 최우선

이영우와 새 외국인선수 제이콥 크루스의 가세로 타선은 더욱 목격해졌다.

'괴물' 류현진을 필두로 문동환, 정민철, 세드릭 바위스 등이 이끄는 선발진도 탄탄해 올해도 한화는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평가 받는다.

김성근, 김재박 두 명장을 새 사령탑으로 앉힌 SK와 LG는 시범 경기에서 포스트시즌 진출 여부를 가늠한다.

SK는 김 감독 특유의 지육훈련으로 조직력을 극대화했다. '제2의 류현진'이라는 기대 속에 무럭무럭 성장 중인 좌투수 김광현과 케빈 레이번, 마이크 로마노 등으로 선발 마운드를 구축했고 타선도 이호준, 김재현 쌍포에 최정, 정상호 등 신진급 방망이가 힘을 보태 짜임새가 좋아졌다.

자유계약선수(FA) 박명환, 하리갈라를 데려와 선발진을 대폭 수술한 LG도 '이기는 야구'를 표방하며 달라진 팀 색깔을 보여줄 전망이다.

사직구장에 100만명의 관중을 모으겠다고 장담한 롯데도 4강 진출을 위해 시범경기에서부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던 최향남이 포스트 시즌 진출 특명을 받고 선발진에 합류했다. 이대호-호세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에 화룡점정을 이룰 3번 타자만 확정되면 올해만큼은 해볼 만 하다는 자세다.

모그룹의 지원으로 당분간 안정적인 구단 운영이 가능해진 현대는 신임 김시진 감독을 앞세워 명가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왕년의 에이스 정민철이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고 2년차 장원삼의 기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끈기와 투지로 선수단이 뽀푹 뽀푹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올해 시즌 판도를 좌우할 다크호스로 주목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연아-아사다 세계 선수권서 또 자존심 대결

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선수권대회(20~25·도쿄)에서 라이벌 열전을 펼치게 될 김연아(17·군포 수리고·왼쪽)와 아사다 마오(17·일본·오른쪽)가 4월 또 한 번 자존심 대결을 벌이게 됐다.

일본 스포츠신문 '산케이스포츠'는 14일 "일본과 북미, 유럽의 피겨 선수들이 3팀으로 나눠 실력을 겨루는 재팬오픈이 4월29일 열릴 예정"이라며 "일본 대표로 아사다와 안도 미키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내달 20일 도쿄서 개최

일 언론들 벌써 큰 관심

신문은 이어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슈퍼아레나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자 김연아가 특별출연자로 초청돼 갈라쇼에서 연기를 펼쳐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아사다와 금메달 경쟁을 펼칠 김연아는 한 달여 만에 아시아 최고의 '빙상요정'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됐다.

한편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지훈련 중인 김연아는 인기 그룹 노다웃의 보컬리스트였던 그랜 스테파니가 부른 빠르고 경쾌한 랩곡의 'Just a girl'을 배경으로 갈라쇼용 프로그램을 새로 준비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오른쪽)이 14일 영국 런던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 홈구장에서 열린 맨유-유럽 올스타팀간 친선경기에서 유럽올스타팀의 안드레아 피를로와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별들의 무대서도 박지성은 빛났다

맨유-유럽연합 올스타전...1도움, 승리 견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별들의 무대'에서도 빛났다.

박지성은 1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홈구장인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유-유럽연합(EU) 올스타팀 간 친선 경기에서 선발 출전, 1도움을 올리며 팀의 4-3 승리에 힘을 보탰다.

EU 출범 50주년과 맨유의 유럽클럽대항전 참가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경기에서 박지성은 4-4-2 포메이션의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서 풀타임을 뛰었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끈 마르첼로 리피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유럽 올스타팀은 스웨덴 출신 헨리크 라르손(헬싱보리)과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인테 밀란)를 선발 투톱으로 내세워 맨유에 맞섰다.

맨유에 10주 동안 임대돼 뛰었지만 굵은 족적을 남기고 최근 스웨덴으로 복귀한 라르손은 올스타팀의 주장 완장을 차고 다시 맨유 팬 앞에 섰다.

웨인 루니와 앨런 스미스가 투톱으로 호흡을 맞춘 맨유는 전반 6분 폴 스콜스의 패스 연결을 받아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을 맞은 루니가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로 차넣어 차 넣어 선제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 9분에는 라인인 깁스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현란한 개인기로 중앙으로 내준 볼을 수비수 웨스 브라운이 쇄도하며 오른

발을 갖다대 추가골로 연결했다. 박지성은 전반 18분 깁스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공을 잡아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수비수를 맞고 굴절되며 아쉽게 골문을 빗겨갔다.

올스타팀은 전반 23분 미드필드 중앙에서 플로랑 말루다(올림피크 리옹)의 버락같은

중거리슛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 한 골을 따라붙었다.

맨유는 전반 35분 박지성이 얻어낸 프리킥으로 다시 한 점을 도망갔다.

박지성이 미드필드 정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다 안드레아 피를로(AC밀란)의 반칙으로 프리킥을 얻어냈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그림 같은 '무회전 킥'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38분 올스타팀의 이브라히모비치가 페널티킥을 실축한 뒤 전반 38분 박지성의 발끝에서 맨유의 네번째 골이 배달됐다.

호날두가 미드필드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내준 볼을 박지성이 바로 다시 골문 앞으로 찼다. 달려들던 루니가 차 넣어 점수 차를 벌렸다.

후반 들어 대거 선수 교체를 한 올스타팀은 엘 하지 디우프(불턴)가 7분 헤딩슛에 이어 43분 페널티킥으로 거푸 두 골을 넣었지만 결국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MLB 소식

서재응 등 3명 내일 선발시험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서재응(30)과 유제국(24·이상 필라델피아 데블레이스), 백차승(27·시애틀 매리너스) 등 한국인 투수 3명이 16일 선발 진입시험을 치른다.

필라델피아는 14일(이하 한국시간) 보도자료인 게임노트를 통해 16일 오전 9시5분 플로리다주 윈터헤이븐 체인 오브 레이크스파크에서 열리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시범경기에서 서재응을 선발, 유제국을 팀의 네 번째 투수로 각각 예고했다.

클리블랜드는 외야수 추신수(25)의 소속 팀이어서 한국인 투타 대결은 물론이고 추신수-최희섭(28·필라델피아) 타자끼리 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재응은 앞선 두 차례 시범경기 '수능시험'에서 잘 다녀 선발 자리를 예약했다.

시범경기 데뷔전이었던 지난 6일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2이닝 퍼펙트로 첫 단추를 잘 꿰고 11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서도 3이닝 1실점으로 안정감을 보여줬다.

특히 이날 경기에는 선발 진입을 노리는 유제국이 서재응, 세스 맥클럼, 제드 오벨라에 이어 중간계투로 등판하고 지난 13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에서 시범경기 2호 안타를 때렸던 최희섭도 출장할 수 있어 한국인 투·타와 타·타 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또 백차승은 같은 날 오전 3시5분 에리조나주 메사에서 스피릿스쿼드로 열리는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서 선발 출격한다.

시범경기 방어율이 7.20로 치솟은 백차승은 후투로 코칭스태프의 눈도장을 받아야 선발 진입이나 통릴리프 중책을 기대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희섭 무안타

최희섭(28·필라델피아 데블레이스)은 타격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추신수(25·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이를 연속 결정했다.

최희섭은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에너지파크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시범경기에서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한 호르헤 칸투 대타로 나서 두 차례 타석에서 볼넷 1개와 삼진 1개 등 1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전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에서 시범경기 2호 안타를 터뜨렸던 최희섭은 시범경기 타율이 종전 0.133에서 0.125(16타수 2안타)로 조금 떨어졌다.

필라델피아는 안타 수에서 필라델피아를 13대 12로 앞서고도 공격 집중력 부족으로 8-11로 졌다. 한편 추신수는 이날 뉴욕 메츠와 경기에서 선발 명단에서 빠진 뒤 대타로도 출전하지 않아 이를 연속 결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